

'코로나19' 장기화에 '생활방역체계' 준비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일상생활·경제활동 보장 방역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개인 위생수칙 등 5가지

정부가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이번 주중에 구성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방역 체계' 전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계획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합의기구에는 의학 및 방역 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석한다.

합의기구에서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시기와 방법, 전략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생활방역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형태의 방역을 뜻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생활방역 실천을 위한 지침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지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을 차단하고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내용의 '기본실천 수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수칙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수칙 등 총 5가지가 담겼다. 중대본은 지침별 3~5개의 실천방안을 세우고, 대상·장소·상황별 세부지침도 만들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소독품 안내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제공된다.

생활방역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를 병원과 의료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인 뒤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 여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중대본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분류된

중요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지난 22일부터 매일 점검해 왔다.

중요시설 8만9천여개소와 노래방 4만 8000여개소, 실내체육시설 4만여개소 등 총 38만3000여개소가 조사 대상이었고, 이 가운데 방역지침을 어긴 시설 3만9809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내렸다.

김 총괄조정관은 "지난 13일부터 17일째 매일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초과해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집단시설 감염 및 해외 유입 사례가 있다"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상당 수준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매일이 감동 ... 병상나눔 감사했습니다'

대구 환자 32명 중 24명 완치...귀가 후 감사의 뜻

"(광주에 아이와 단둘이) 도착한 첫날 저녁, 집을 풀고 나니 막막함과 두려움 그리고, 아이에 대한 미안함에 화장실에서 평평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의료진들께서) 잘 잤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매일매일 신경 써주시고, 자신들의 간식도 선택 나눠 주시고, 아이에게 장난감도 주시고..., 의료를 뛰어 넘어선 배려와 따뜻한 보살핌이 제겐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빛고를 전남대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대구지역 확진자 A씨는 퇴원 당일인 지난 25일 병원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의 글을 올렸다.



대구에서 온 참외

지난 7일 대구에서 딸과 함께 광주로 이송된 30대 여성 A씨는 '몇 시간 뒤 퇴원을 앞둔 아이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다음날 아이까지 확진 받던 날 하늘이 노랑게 보였다. 병상이 없어 며칠을 여기저기 전화하며 불안해 할 때, 광주에서 저희 모녀를 받아주시겠다고 해 어린이를 안고 광주까지 내달려 왔다"며 감염 직후 막막했던 상황을 회상했다.

광주 도착 직후 여러 염려 때문에 혼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는 A씨는 "도착 다음날 의료진을 만나면서부터는 매일이 감동의 연속이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방호복 차림으로 돌봐준 51병동 간호사와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며, 손수 만든 반찬을 챙겨준 수간호사 에 대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 A씨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꼭 다시 찾아 올 것이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A씨 외에도 대구에서 빛고를전남대 병원을 다녀간 많은 확진환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하트 모양을 가득 담아 배달업체를 써 내려간 카드 한 장과 맞닿은 참외 한 상자 가 병원에 배달됐다.

아이가 쓴 카드에는 "간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병원에 있는 동안 잘 보살펴 주시고 밤을 주실 때마다 간식 챙겨 주셔서 감사하고 맛있는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빨리 나왔어요. 건사하고 힘내세요"라고 적혀있었다.

지금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인 빛고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 받은 코로나19 대구지역 확진자는 모두 32명으로, 24명이 완치돼 귀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수산물 소비촉진 '드라이브스루' 판촉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전남도와 (사)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남연합회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차량 안에서 회, 전복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주문하는 '드라이브스루 수산물 판촉 행사'를 서남권을 중심으로 4월 중 3회에 걸쳐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3회에 걸쳐 여수시와 완도군에서 주말을 이용,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활어회를 포장 판매해 5600만원어치를 판매 하는 등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또 지속적인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최근 2회에 걸쳐 전남도청 구내식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식회와 수산물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전남도는 할인판매 행사를 도내 유관기관·단체 등에 적극 홍보해 지금까지 2억 700만원의 판매 성과를 올렸으며 4월말까지 기간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촉활동 강화를 위해 도내 쇼핑몰인 '남도장터'를 통해 수산물을 최대 20% 할인 쿠폰 행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 쇼핑몰 수산물 할인판매에 이어 일부 시·군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추경 예산을 확보해 도내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온라인 쇼핑몰남도장터 할인 판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산물 소포장제 지원 등 수산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돌봄교실 어린이들 오늘도 발열 체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 30일 광주 서구 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긴급돌봄교실 교사가 원아를 맞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도 '코로나19' 극복 긴급 추경예산 2139억 편성

방역·취약계층·농어업인·기업 등 지원...4월3일 심의·의결

전남도는 30일 '코로나19' 감염병 방역과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생계안정,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전남도 추경예산 규모는 2139억원으로 일반회계 1719억원과 특별회계 5억원, 기금 415억원이다.

재원은 국고보조금 1224억원, 재해구호기금 250억원, 재난관리기금 165억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500억원은 지역개발기

금에서 차입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방역강화,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및 소상공인 지원, 농어업인 지원, 기업지원 등 4대 분야로 크게 나눠 집행할 예정이다.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 강화 105억원,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 등 1496억원, 농수산물 판매 촉진사업 21억원, 침체된 기업의 경제 활동 지원 99억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대응 조치로 오는 4월 3일 도의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강상구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키로 도의 회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특례보증 심사절차 8단계에서 4단계로

전남도·전남신보, 5000만원까지 '신속심사제도' 운영

전남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심사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현장조사를 생략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30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증 신청이 평상시 대비 5배 이상 폭증해 보증서 발급에 최대 8주까지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신보는 '신속심사제도'를 운영해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심사과정을 대폭 줄이고, 심사절차도 기존 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다.

특히 다른 사·도와 달리 모든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과감히 생략, 소상공인의 신속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방침도 세웠다.

또 보증업무 적체 해소를 위해 15명의 단기 계약직원을 채용하고, 보증 상담·접수 업무를 도내 8개 은행(농협, 하나, 우리, 광주, 신한, SC제일, 기업, 국민)으로 위탁을 확대해 은행에서도 상담과 신청·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남신보는 보증심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하루 평균 500건 이상 특례보증서 발급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4월부터 10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전남신보를 방문할 필요 없이 도내 8개 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보 누리집(www.jn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자도 고수의 볼.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9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강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공장부지 매매" (급 매)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교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 분석사 자격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